큰 믿음과 분수 넘음의 차이

(민16:1~33)

1.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4.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6.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큰 믿음과 분수 넘음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큰 믿음과 분수 넘음의 차이'

고사성어 중에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마귀가 팔을 벌려서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보자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대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맞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확증될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를 제거해 버리면 당랑거철입니다. 또한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나가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서 따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시각을 조금 달리해 보면 이런 것이야 말로 사마귀가 팔을 벌리고 수레를 막으려고 하는 당랑거철이 아니겠는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그것도 큰 믿음이고 어디에서부터 분수를 넘는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도 됐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를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나무라면서 한 말 속에도 '너희가 분수를 넘는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갈등의 키워드는 '분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읽다보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31~33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장막 앞에 서있게 하시고 이 서있던 땅이 그 자리에서 갈라져서 땅 속으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감쪽같이 없어져 버리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수'라는 것은 내게 할당되고 허락된 영역이고 내게 허락 된 경계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수가 있다면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내게 허락된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면 내가 설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땅이 삼켜버린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레위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를 향하여 '분수를 넘었다'고 하고 모세와 아론도 이들을 향하여 '분수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분수를 넘은 결과에 의해 땅이 갈라지면서 이들이 묻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경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분수를 넘은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간첩이 남한으로 오지만 남한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 간첩을 위해 공식적으로 허락된 땅이 없는 것이고 설 땅이 없으므로 신분을 속이고 숨어서 나로 살 수가 없듯이 분수를 넘으면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상징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설 땅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나로 살 수 없다는 것이며 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에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서 기쁘고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인데 분수를 넘으면 내가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오늘 '분수 넘음과 큰 믿음과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제사장 직을 아론의 자손이 독점하는 것은 마치 큰 아버지의 자식들이 온 재산을 다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큰 아버지와 그 가족이 다 갖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냐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고 여겨지는 불

평이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혈통적으로 보자면 선민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선민들을 통솔하는 지도자적 위치를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기들이 갖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가 아닌 것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민은 평등한데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 서서 그 일을 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도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분수를 넘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생기면 겉으로만 보기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모두가 다 더 깊이 헌신하겠다는 명분 아래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생기고,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목사님과 반대파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분수를 넘는 것이고, 어느 쪽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냐? 흔한 일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500억이 경비로 계산되었습니다. 교인들이 200억 정도 헌금을 하고 그 땅과 짓게 될 예배당을 담보로 대출을 300억 정도 받아서 건축을 합니다. 그 때에 모든 교인과 목사님이 한 마음으로 갖게 되는 생각은 '큰 믿음을 갖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인지 아니면 교회가 분수를 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탐 사건을 돌아봅니다. 성경상의 맥락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 명의 정탐꾼이 잘못 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열 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누가 큰 믿음이고 누가 분수를 지킨 것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광야에서 방랑하던 오합지졸이면서도 가나안 족속을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야말로 당랑거철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이거야 말로 당랑거철 아닙니까?
이런 것들보다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제사장 자리를 서로 나눠서 하자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분수 넘음에 대한 오류가 적어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장자 집안인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통솔권을 나누자고 하는 것도 오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닌데 땅이 갈려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만 좋고 옳은 것이고, 분수를 키우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의 분수만 지키면 도대체 발전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역할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 삶이 아닐까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9평 전세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걸 평생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5년 뒤에는 24평짜리로 늘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자동차도 조그마한 소형차만 타고 다녀야 되고, 차를 좀 좋은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예배당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분수를 지키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변할 수 없는 것인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분수라고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분수를 키웠다고 해서 다 이룰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분수를 키워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데, 우리가 분수와 연관되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라가 와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나누자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직접 분수를 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수의 크기나 경계는 고라나 아론이나 모세가 다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분수가 고라에게 허락하신 분수보다 조금도 우월하지 않고, 고라에게 허락하신 분수가 모세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차이도 없이 동일한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분수를 알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앞장 15:41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세 번 말씀하십니다. 선민 각자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민에게 허락하신 분수는 비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갖는 것이 개별적으로 허락되고 할당된 분수로 똑같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분수이고 허락된 몫이고 내 기업입니다.

그러면 '분수를 넘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앞장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15:39절에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모든 선민에게 허락된 분수는 마음의 빈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내 하나님으로 갖는 것이고, 반대로 분수를 넘는 것은 이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것을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에 다른 것을 들어오게 하므로 음행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눈으로 큰 집을 보고 큰 차를 보고 높은 지위를 보면서 마음이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할 때에 이미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갖고 싶어 하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한분만을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분만을 가져서 분수를 지키는 자들의 특성은 이 세상에서 5감관으로 포착되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갖고 싶다는 바람을 갖지 않습니다. 이 분수를 지키기 위해서 번제나 속죄제 같은 제사가 있

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분수를 넘은 것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는 자꾸 분수를 넘으려고 하는 나를 죽이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 분수의 경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분수의 경계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넘어서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만져지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분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세상 중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 쪽으로 가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분수의 경계인 십자가에서 걸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십자가 안쪽으로 머물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수에 넘는 행동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오늘 고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갖는 분수를 지켰다면 절대로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욕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와 지위와 아론의 자리를 언급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분수에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은 분수를 넘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자리를 탐하고, 좋은 아파트를 탐하고, 대출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대부분 지금 형편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바랄 때에 분수를 넘게 되는데, 선민이 분수를 넘게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분수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분수를 넘을 때에는 본래 내게 할당된 분수보다도 더 허접하고 더 비천하고 더 천박한 것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 안에서는 더 좋고 더 많고 더 높고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분수를 넘게 되는데, 선민이 분수를 넘을 때에는 본래 할당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허접한 것을 향하여 분수를 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8: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라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다'고 해서 그 분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좋은 존재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진 분으로서 마땅히 나타난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을 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분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져야 한다는 분수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유무상통이 가능한데,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분수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갖고 싶으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물려야하는데 이상하게도 분수를 넘는데 허접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와 고라 일당의 갈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통치하는 1인자의 자리에 섰고, 아론은 평생 그 집안이 영원무궁토록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을 담당해야 하는 집안이 되었으므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분수를 지켜서 하나님을 가질 때에 우리 몸과 인격은 하나님의 장갑이 된다는 것이에요. 장갑의 분수는 주인이 자기를 끼도록 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장갑 속에 사탕이 들어있거나 모래가 들어있다면 장갑을 낄 수 없습니다. 장갑은 끼워질 때 주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수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위나 아론의 자리나 이 세상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은 장갑의 일이 아니라 장갑을 끼신 분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으로 장갑입니다. 장갑의 분수는 주인에게 끼워지는 것이 분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장갑을 끼고서 화분을 만질 수도 있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갑의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장갑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아론이 무엇이기에 아론을 원망하느냐고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장갑으로 삼고 계신 것뿐인데, 장갑된 아론에게 무엇을 자꾸 원망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장갑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눅11: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시고, 요5: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사도들도 행4: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장갑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2:20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갑이 되려면 철저하게 분수를 지켜야합니다. 분수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갑삼아 끼실 때에 내 몫은 다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놓친 것은 제사(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신 이유가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번제를 기억하도록 매일 같이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제사는 250만 명 각자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 상번제를 놓치면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에 끌려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셔서 크게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적으로 오해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는 자기 분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양치기를 하며 들판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갑 삼으시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분수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장갑이 되었던 것이고, 모세도 애

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셔드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민들의 삶인데 우리 분수인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할 때에 목사님이 분수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대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멋진 예배당을 마음에 꿈꾸는 것은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고, 마음에 멋진 예배당의 형상이 비전으로 자리 잡으면 이미 하나님이 포기된 것입니다. 예배당과 하나님은 일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선교 사업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것이냐 분수를 넘는 것이냐를 알려면, 십자가에서 예배당에 대해 완벽하게 죽어서 예배당에 대한 소원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당회를 장갑 삼으셔서 예배당을 건축해나가실 수 있고, 교인들이 예배당 짓자고 들고 일어나고 300억씩 대출을 받지 않아도 여건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큰 믿음과 분수 넘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해 완벽하게 죽는 것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점점 배가 불러서 아무런 소원이 없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원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의 사건이고 큰 믿음의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장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분수를 넘는 것인지, 큰 믿음의 현상과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넘지 않는 경계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분수의 경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할당된 내 몫의 기업이므로 그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하고 십자가가 그 경계선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분수를 넘지 않도록 큰 역사가 일어나든 작은 역사가 일어나든 하나님이 나를 장갑삼아 행하시는 일로만 여생의 시간들이 가득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